

6. 블랙 박스 테이프가 끝이 난 후 KAL 007기가 얼마나 운행을 더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?

러시아 측이 제출한 블랙 박스 테이프들은 미사일 폭발 후 1분 44초 후에 끝이 난다. 비행기가 파괴를 면할 수 있었고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다는 것은 현재 테이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. 우리는 소련과 일본 레이더 추적 장치들에서도 비행기가 적어도 10분 여 이상 동안 비행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우리는 또한 이 시간 동안의 소련측 지대지 통신 내용도 가지고 있다. 이 자료들은 모두 KAL 007기가 조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.

1. 미사일이 폭발된 후, KAL 007기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. 분명히 코르누코프 장군은 이 점보 제트기가 공격에서 살아남아 조종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공해쪽 방향인 남쪽이 아니라 소련측 영토를 더 깊이 들어가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에 놀랐다.

게라시멘코 지휘관 대리 (6:28): 목표물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

코르누코프 장군: 목표물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?

게라시멘코: 확실합니다.

코르누코프: [미그] 23기를 불러들여 파괴시켜 버려!

2. KAL 007기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보조 기구없이도 호흡 가능한 5000미터 (16,400 피트) 상공으로 하강했을 때, 속도를 늦추고 4분 동안 수평 비행을 지속했다 (Rescue 007- 한글판: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, 54 쪽).
3. KAL 007기가 5000미터 상공에서 4분 동안의 수평 비행을 한 후 정확하게 모네론 섬 상공으로 나선 비행을 하면서 하강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. (소련측의 기만 노력은 나중에 비행기가 공해 상공 북쪽 22마일 정도 떨어진 곳 또는 소련측 바다 상공 북쪽에서 11마일 떨어진 곳에 추락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. (Rescue 007- 한글판: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, 부록 B, 131ff. 쪽)). 여기서 이 점을 재고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:
 - 나선 비행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. 이것은 비행기가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제력을 잃고 마구 휘말리며 떨어져 파괴되어 버렸을 거라는 가능성을 없애버린다.
 - 타타르 해협은 소련 본토의 북쪽과 서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할린 섬 590 마일 길이로 동쪽 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다. 서쪽으로는 동해가 있다. 이 바다에는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네론이다. 이 섬은 사할린에서 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으며 본토에서 약 125마일 정도 떨어져

있다. 이 지역 이외에 가장 가까운 대륙은 남쪽으로 약 53마일 떨어진 일본의 레분 섬이다.

- 1983년 9월 1일 표준시 18:36 경, ICAO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, 구름이 2000 미터 고도 상공에 짙게 있었다. 이는 비행기가 구름 아래로 내려간 후에 소련 전투기들이 이 정보 제트기 발견하는 것을 막았다. 시간 또한 새벽을 2시간 남짓 앞둔 밤 시간이었다.

수평 비행을 4분 여 동안 진행한 후, 5000 미터 상공에서 KAL 007기가 밤 시간에 구름을 뚫고 안전을 기하도록 대륙에 충분히 가까운 수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정확히 한 지점으로 하강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지식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비행 능력과 가항성을 보여준다.

이렇게, KAL 007기가 미사일 충격이나 타타르 해협 표면으로 하강하던 12분 동안 어느 시점에 파괴되었다는 그 어떤 의견도 모든 증거에 반대되며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.